

어머니의 탕약

김현구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연구단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는 자그마한 화덕을 마당 한쪽에 놓고 숯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약을 달이는 것을 보며 자랐다. 나도 어머니 옆에서 숯불이 잘 타도록 입으로 “후후” 불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10리를 걸어가면 읍이 나오는데, 읍내에 소재한 한약방에서 1년에 한 번씩 한약을 지어 오곤 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한약을 복용한 기억이 있다. 한약 한 제를 지어 와 커다란 약 보따리를 풀면 얇고 하얀 종이로 싸인 어른 주먹만 한 약 멍치가 스무 개 정도 들어 있었다. 하얀 종이에 싸인 약 한 첩을 약탕기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은 다음 약을 싹뻗 하얀 종이를 뚜껑 삼아 약탕기 윗부분을 덮어 싸맸다. 그리고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불을 유지해 꺼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어머니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불을 유지하며 천천히 달여야 생약이 잘 추출된다고 말씀하셨다. 한나절 동안 은은하게 숯불을 피워 한약을 달인 다음 삼베 수건에 넣고 하얀 막대기 두 개로 비틀어 짜면 한약 한 사발이 탄생된다. 새로 한약을 한 첩 달이고 한번 달인 한약 두 첩을 멍쳐 재탕하다 보면 꼬박 열흘간 하루 종일 달여야 한약 한 제 달이는 일을 끝낼 수 있다. 오늘날에는 현대화된 시설로 하루에 한약 수십 첩을 한꺼번에 달여 파우치에 담아 필요에 따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달이시던 한약을 좋아한다. 거기엔 끝없는 정성과 아름다운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머니가 한약 달이시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치마와 하얀 저고리를 입고 가르마 탄 머리엔 하얀 타월을 감아올린 채 한약을 달이시던 모습을 다시 떠올려본다. 오늘날 돈만 주면 바로 달여주는 한약과 열흘 이상 정성과 사랑을 다해 달인 한약의 효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약 성분은 같다고 해도 정성과 사랑을 다해 달인 한약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그 정성과 사랑을 나눠주며 좋은 효능을 발휘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마당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입김을 “후후” 불어가며 한약을 달이시던 어머니가 그림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던 나의 어머니가 피안의 세상으로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때를 회상하며 하얀 종이에 싸여 있던 내용물을 되돌아보니 한약 재료가 산과 들에서 나는 생약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약재와 같은 식물은 인류 생활의 모든 면에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식물을 이용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원시시대부터 부상과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생약재를 사용해왔다. 생약재는 본래 산야의 야생 상태에서 채취해 이용했으나 오늘날 농가에서 재배하는 생약 식물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생약 식물만도 40여 종에 이르고 1987년 한방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생약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나라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신농본초경』에 365종, 명대에 이시진이 집필한 『본초강목』에 1,892종, 중국의 『중약대사전』에 약 5,000여 종의 생약재가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향약집성방』에 702종, 『동의보감』 탕액 편에 526종, 『향약채취월령』에 160여 종의 생약재가 기록되어 있다. 한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생약재 500여 품목이면 인류의 부상과 질병을 다스리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생약을 300종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생약 식물이 500여 종이 분포하는데 이 중에서 재배종은 40여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비교적 많이 재배되거나 생산되어 농민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당귀, 황기, 천궁, 작약 등 28종의 생약재가 주요 재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는 약 20년 전 강원도 태백농협의 요청으로 생약재를 이용한 드링크 타입의 음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생약재 음료 개발 기술을 태백농협에 이전해 현재까지 흑자를 내며 생약재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태백농협에서 생약재 음료를 시판한 이후 우리나라의 음료 회사에서 생약재를 기초로 한 음료를 많이 선보였다. 그 때문에 20년 전에는 탄산음료와 오렌지 주스가 음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생약재를 원료로 한 음료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생약 음료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음료로서 계속 발전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원시시대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생약재는 오늘날 식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는 최근 비만과 당노를 억제할 수 있는 생약재를 찾아 효과적인 추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제 생약재는 단순히 한약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약재 분말과 추출물은 기능성 소재로서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과 당뇨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거나 간 기능을 개선하는 등 생약재의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종의 생약재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탕약을 달이시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 때문일까. 내가 어릴 적 마당 한쪽에서 탕약을 달이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성과 사랑이란 말이 떠오른다. 화덕의 불꽃이 조금만 세면 탕 액이 말라버리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금세 타버린다. 정성 들여 불꽃을 다스려야 하고 뜨거울 때 삼베에 넣어 꼭 짜야 한 사발의 한약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어머니가 탕약 달이시던 모습에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사랑을 다하는 마음을 배웠다. 정성과 사랑을 가르쳐주신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